

다산포럼



박민정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己所不欲, 勿施於人)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이 같은 발언은 유교적 황금률로 잘 알려져 있다. 공자는 ‘타인이 자신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나 역시 타인에게 행하지 않아야 한다’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 고 말했다. 공자가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로 제시한 행위 준칙은 그의 제자들에게 ‘충서’(忠恕)의 가르침으로 전해졌다. 충서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사유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주희(朱熹, 1130~1200)의 해석 탓에 ‘충’(忠)은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盡心)으로, ‘서’(恕)는 자신을 타인에게 미루어 적용하는 것(推己及人)으로 이해되었다. 주희가 생각한 충서란 내 마음의 진실성에 근거해서 타인을 대우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강조한 ‘서’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다루는 방법을 의미했다. 이것은 나에게 선행이 있으면 타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나에게 악함이 없으면 타인에게 그 악함을 없애도록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주희는 ‘서’의 방법이 상대에게 선행 것을 요구하고 상대에

다산의 충서(忠恕),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공부

게 불선을 책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나의 진실한 마음(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그가 ‘서’를 타인을 교정하고 훈육하는 행위로 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산(荊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 충서란 무엇이었을까? 그가 말한 충서란 ‘진실한 서’를 의미했다. 그런데 이때 ‘서’는 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닦는 공부를 뜻한다. 말하자면 다산은 타인에게 미루어 적용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공부에 주목한 것이다. 그는 ‘서(恕)라는 것이 본래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自治)인데 이것을 거꾸로 잘못 말하면 간혹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治人)에 가깝게 된다’고 우려한다. 다산은 옛 성현이 말하는 ‘서’는 우리가 남에게 선행을 요구할 때 자신에게 먼저 그것이 있도록 노력하고, 남의 잘못을 비판할 때 자신에게서 먼저 그것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태도라고 이해했다. 이 점에서 다산은 주희가 제시한 충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충서란 순수하게 자신을 닦는 내 마음의 공부인데 주희가 이것으로 남을 다스릴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더구나 다산은 남을 교정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의 치인(治人)도, 내가 타인에게 바라는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행위(事人)일 뿐이라고 말한다. 내가 남을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남에게서 바라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의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뿐이다. 요컨대 핵심은 ‘서’의 의미가 나 자신을 수련하고 조율하는 데 있지, 내가 타인

에게 선을 요구하고 불선을 책망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말이다. 서(恕)의 행위 준칙은 유교의 윤리학과 도덕철학의 핵심을 밝히는 매력적인 주제로 부각되었다. 충서의 논리는 특수한 도덕률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인 행동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유교의 충서론은 동서양의 보편적 황금률로 해석되거나 혹은 칸트(Kant, Immanuel, 1724~1804) 도덕철학의 정언명법과 함께 평가되었고, 서구 자유주의 전통의 정치철학과 함께 평가되기도 했다. 충서를 타자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 공감과 관용으로 풀이하는 현대적 해석들도 등장했다. 물론 유교적 문맥에서 ‘서’는 차이나 다름에 대한 용인과는 구별된다. 유학자 다산은 왜 ‘충서’가 남이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이라고 보았을까? 그는 타인에 대한 대처나 인간관계의 기본은 우선 자신에게 열쇠가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타인 관계는 내 자신을 돌보고 나를 수련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다산은 인륜 관계에서 상대에게 ‘서’를 실천하는 것이 자수(自修), 즉 자기 연마와 수양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타인 관계가 내 자신과의 관계, 즉 내가 나와 맺고 있는 관계를 비추는 거울임을 의미한다.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나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바라고 회개하는가? 나는 자신과 어떻게 화해하기를 원하는가? 타인 관계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다.

기고



임영진 마한연구원장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살아도 무방한 것들도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후자에 해당하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개정된 내용과 문제점을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특별법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마한 역사문화권의 공간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새로운 이맥 역사문화권과 중원 역사문화권이 추가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발효되었던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는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시행 이후 점·선·면 단위로 확대되어 나왔다. 하지만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국토 전체를 포괄해 보고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인데 처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공간·내용에 있어 엄정한 기준이 유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역사문화권의 구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고대 문헌

기대 반 우려 반, 개정된 ‘역사문화권 특별법’

에 처음 등장하는 독립된 정치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에는 조선이 있고, 진수의 ‘삼국지’ 동이열전에는 부여·고구려·동옥저·파루·예·마한·진한·변한이 있다. 2019년 4월 11일 발의되었던 특별법 원안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개 문화권이 설정되었다. 고구려는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지역에 국한되었고, 백제·신라·가야는 각각 마한·진한·변한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그와 같이 설정되었다. 입법 예고를 거쳐 보완된 수정안은 마한 역사문화권과 탐라 역사문화권이 추가되어 2020년 5월 20일 의결되었다. 이 가운데 마한은 진한에서 발전한 신라나 변한에서 발전한 가야와는 달리 고구려계 이주민에 의해 서울에서 건국되었던 백제에 의해 병합되어 나갔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변해 나간 마한의 공간 범위를 어느 한 시기에 맞춰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정안에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일대라고 규정되자 경기·충청·전북 지역에서 마한권을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이미 고구려·백제·가야권 등에 포함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한권을 표방한 것은 특별법의 혜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특별법 제1조에는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백제권에서는 도읍지 외에는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마한권은 54개 소국들이 자치와 분권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소국별로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마한 역사문화권은 충청·광주·전남·전북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충북 지역은 원래 고구려 역사문화권에 포함되었다가 개정안에서 강원·경북·경기 지역과 함께 중원 역사문화권으로 설정되었다. 고구려·백제·신라의 각축장으로서 여러 역사문화 화원이 공존하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예맥은 당연히 독립된 권역으로 설정되었어야 하지만 조사·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강원 지역이 예맥 역사문화권으로 설정되었다. 특별법은 시행 반년 만에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조정된 지역 가운데 경기와 충남은 고구려와 백제권, 경북은 신라권과 가야권, 전북은 백제권과 가야권에도 포함되어 있다. 전남은 가야권에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광역권 중복 문제를 잘 풀어 나가야 하겠지만 개리맨더링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문화권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중원 역사문화권이 설정된 것도 바람직할 것 같지 않다. 마한 역사문화권에 광주광역시도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충청과 전북 지역이 추가된 것은 원래 마한에 뿌리를 두었던 지역이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명분 없는 독자성을 표방하거나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여러 문화권에 속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백제가 가려졌던 마한의 역사와 문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밝혀지고 개발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청춘 특특



이나경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2년

에리히 프롬이라는 서양 철학자가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삶을 소유적 삶과 존재적 삶으로 나뉘 정의하고 있다. 소유적 삶은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삶을, 존재적 삶은 나의 존재성·정체성·주체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로 인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먼저 생각했다. 타인의 시선이 늘 신경 쓰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나에게 대한 남들의 평가를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어느 순간에는 정체성과 주체성도 없이 남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나 자신이 느껴지기도 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연이 되는 법

일제로 1년 동안 꾸준한 운동을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있다. 살을 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타인의 평가 때문에 외모에 대한 압박 관념이 더 심해졌다. 하루에 몇 번씩 체중계에 올랐고,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매우 절망했다. 그러다 거식증에 걸려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나를 변화시킨 건 ‘철학’이었다. 대학에 와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내 삶에 변화가 생겼다. 소유적 삶을 중시했던 내가 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욱 중요한 가치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첫 결과물은 SNS 탈퇴였다. 하루하루 버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와 달리 내 휴대전화 속 사람들은 힘든 일 없이 마냥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였다. SNS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도 사기 힘든 명품들이 가득했다. 그걸 보며 부러워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내 자신을 보며 또 다시 절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SNS 속 나의 현실의 나와 달랐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 SNS에는 내가 정말 올리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추억보다 남에게 보여 줄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사진과 글만 게시했다. 그렇게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SNS에 만들어지고, 그 모습이 집착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타인의 시선,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SNS를 점차 줄이거나 끊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 오히려 내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SNS에서 손을 떼며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쓰기로 마음 먹고,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자원봉사를 하며 내가 진정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내 존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했던 내가 철학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법을 배웠다. 밝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에 대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 수도 있다. 나는 앞으로 남은 대학 2년 동안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 주며,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 가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존재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삶에 대해 방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청춘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내 인생에서 나를 조연으로 두지 않길 바란다.

社說

대선 양강 구도 균열 호남 민심이 좌우한다

광주일보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의 지지율이 60%를 넘어섰다. 이 후보는 광주에서 64.7%, 전남에서는 69.9%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윤 후보는 광주 11.4%, 전남 9.8%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0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각각 808명과 8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주에서 6.8% 전남에서 3.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광주 4.8% 전남 5.6%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신년에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후보가 국민의힘을 후보를 크게 앞선 결과들이 나왔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진행

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지지도는 39.3%로 윤 후보의 27.3%를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어선 12%포인트였다. 이어 국민의당 안 후보 8.1%, 정의당 심 후보 3.2% 순이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체제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호남과 중도층의 지지를 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양강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호남 민심의 선택이 대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에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올려야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양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남 10%대 지지’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내야 한다. 따라서 양당 모두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광주의료원 설립 위해 타당성 조사 면제를

광주의료원 설립이 얼마 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타 면제 사업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을 포함시킨 반면 광주의료원 과 울산의료원은 제외기로 결정된 것이다. 대선 양 의료원의 경우 올해 국비에 10억 원씩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됨으로써 신규 사업에서 제외돼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경됐다. 타당성 재조사는 예산이 반영돼 추진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는 제도로 실질적 내용은 예타와 똑같다. 이에 따라 광주의료원은 10개월 동안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은 일단 차질이 생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삼우지구 도심융합특구 내에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공공의료원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즉 경제성을 주로 따지는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기는 사실상 힘들다. 정부가 그동안 대전·서부산·경남 의료원 등에 예타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히 국회가 지방의료원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도 조만간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어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방법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도에 비해 뒤늦은 광주의료원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원에 예타 면제 혜택을 주면서 광주와 울산만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無等鼓

임인년(壬寅年) 새해 벽두, 코로나19가 조만간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거버너여수스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목표대로 전진한다면 2022년 말에는 다시 모임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2년 동안의 경험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게 됐다는 점과, 백신·마스크나 진단 추적 및 사회적 방역조치 등의 전염 통제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여기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전염력은 높지만 다른 변이보

다 폐에 손상을 적게 주며, 확진자의 증중 전이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오미크론 확산 공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한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과 방역만 잘 이뤄진다면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가 같거나 같은 질병으로 바뀌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백신 불평등이 종식되지 않는 한 코로나의 종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

공존의 법칙

하는 공존의 법칙을 파괴함으로써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공조가 없다면 그 어느 나라든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코로나의 종식은 백신 불균형 해소 등의 공존의 법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기다. 율해는 인류가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의 지혜를 모아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